

NEWS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전남, 철강·석유화학 고용둔화 지원사업 나선다

▶1면 '예산·국가정책'서 계속

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AI 산업의 시간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생활 실증사업 등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에 기획재정부와 막바지 협의 중인 만큼,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 집적단지 인근에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유찰된 해당 공공사업의 재추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군공항을 포함해 마복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등은 시민 생활권과 충돌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이전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오는 9월 열리는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식에 대통령 참석 등을 건의했다.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차별 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정 전반의 인권 감수성을 점검했고, 즉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의 99%가 원유·LNG 등 비컨테이너 화물이며, 여수·광양항은 이에 최적화된 항만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항만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현실적인 국고지원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그는 “피해액 10억원 이상인 지역에는 국비 50% 이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향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어업재해보험 활동률이 최대 50%에 이르고 있어 농어가의 부담이 크다”며 “이를 30% 이내로 완화해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근로자 새출발 희망 사업·근로자 안심패키지 등 4개

도, 실직·재직자 대상 생계 안정 등 실질적 도움 기대

전남도는 장기 경기 침체와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용 둔화가 심화됨에 따라 위기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역 고용 둔화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산업 고용 둔화 대응 지원사업은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성공플러스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4개로 구성됐다.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은 최근 2년 이내 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했거나 실직한 근로자 약 2800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2년 이내 철강·석유화학 업종 관련 기업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했거나, 재직 중 공플러스 지원사업, 기숙사 임차지원사

계 1인당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최근 3개월 이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문화체육비, 주거비, 통신비 등이다.

특히 석유화학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여수)은 모집 첫날인 1일 인원 1780명이 모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신청자는 예비 후보자로 접수하며, 먼저 접수한 신청자가 탈락하면 신청

자격을 승계하게 된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고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고용 불안을 겪는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여수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찾은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최근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강진군 군동면 병리정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의 안부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 전복 등 고수온 피해 긴급 예비비 10억 지원

도, 여름철 수산물 소비 활성화...양식어가 숨통 기대

전남도는 최근 연일 지속되는 고수온에 따른 전복, 조피볼락 등 주요 양식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비 10억원을 양식어가에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피볼락에 대해 가공·유통 비용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를 통해 산지에서 적체된 200여t의 물량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산지 생산 어가에서 직접 매입해 공급한 후 이를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예비비 지원 외에도 지역 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 수산물 활용 꾸러미 지급, 학교급식 등 대규모 소비처 발굴·지원 등 다양한 소비 촉진 사업을 추가로 펼치고, 고수온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손영근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이번 긴급 소비촉진 활성화가 고수온 피해로 어려운 양식 어가에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며 “도민과 전국 소비자들께서 전남 수산물 소비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 비상임이사를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부

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체육시설 관리 등 업무 경력을 갖춘 자 등으로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총무팀(062-600-664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시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에 김영문 전 사회통합비서관 내정

광주시는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에 김영문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비서관(사진)을 내정, 4일 임명할 예정이다.



서 갈등 조정과 협력구조구축에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당정 간 정책 협력 및 예산 확보 경험을 바탕으로

김영문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사회통합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재정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역임하는 등 중앙행정과 정당 실무에 정통한 정책전문가다.

김 내정자는 영암출신으로 서강고, 경희대 수학과, 한양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광주시는 김 내정자의 풍부한 정부 감각과 균형 잡힌 리더십, 이재명 정부·국회와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광주의 문화·경제 분야 도약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비서관 재임 당시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조정 역할을 수행, 문화예술계·경제계·시민단체 등 다원적 주체가 얹혀 있는 문화·경제 정책 분야에

으로,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시는 이상갑 전 문화경제부시장 후임으로 지난달 김현성 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내정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시 관계자는 “김 내정자의 행정진 문성과 통합 리더십은 민선 8기 시정 방향인 문화·산업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 통합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신산업 유치,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시, 소상공인 출산·임신 가정 50만원 지원

KB금융그룹 후원...시, 31일까지 870곳 선착순 모집

광주시가 소상공인 임신부·출산가정에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광주시는 KB금융그룹의 후원으로 4억 3500만원을 마련해 임신부 170가정, 출산 700가정 등 총 870가정에 각각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자 신청 접수는 31일까지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종사자) 가정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 1월부터 신청일 현재가

지 출산한 가정이다. 사업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개별 안내 문자로 통보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와 KB금융그룹이 함께 임신·출산·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INTEGRITY

PASSION

SINCERITY

CHALLENGE

(유)차오름피앤디
CHAORUM Planning & Development Co., Ltd.

■ 농어촌지역개발 타당성 분석, 예비계획, 기본계획, 지역역량강화

■ 측량업 공공측량,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드론측량, GIS

■ 지하수관련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이용개발시공

■ 시설물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

■ 종합디자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리플렛·포장패키지·스토리북·사진첩·조감도 제작

■ 엔지니어링사업 토목설계(도로 및 공항·상하수도·토질 및 지질·구조), 도시계획(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 감리

A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정로 3, 2층
A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44, 3층 301호
Tel. 062-710-5758 Fax. 062-710-5759
E-mail. corpdn@naver.com